

09

중국의 군사력은 얼마나 강한가

해상 전력 강화를 통한 팽창주의 실현의 야심

앤드루 에릭슨

오늘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답게 국방비 규모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재래식 미사일 부대와 해안 경비대를 자랑하며,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세계 유일의 해상 민병대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2위 규모의 대양해군^{大洋海軍}

- 이 글에서 제시한 분석 자료는 공개된 출처에서 발췌한 것이며 페어뱅크 중국연구소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추천 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미 해군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정책 혹은 통계 수치와 다를 수 있다.

신뢰할

중국을
군사적

중국의
인민부
원, 혁신
분쟁 부
인' 국가
적 대외
안보의
과 연결
있다는

수행하
영유권
당한다
중국
구성과
정치적
국공신
이는 『
대외적

을 앞세워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 되는 일도 며지않은 듯하다. 중국의 조선 능력이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한 것도 군사력 신장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긴다. 정확히 중국의 군사력은 얼마나 강한가? 가장 교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른 국가와 군사력을 비교하면, 특히 이론의 여지 없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 물론 그 누구도 가장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를 원치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평화 시의 지정학적 상황과 지역 및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순평가 net assessment'(두 국가의 군대나 안보 집단 간의 상호 작용을 상대방 입장에서 분석하는 방식—옮긴이)를 하려면 공개된 출처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를 포함해 다수의 변수가 연관된 군사 작전 상황상의 모든 요소가 필요하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군사력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그럴 경우 자칫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국가마다 군의 구조, 목적,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외에 양방향 분석 또한 필수적이다. 중국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의 군사 기지 및 함대를 겨냥할 수 있도록 자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상의 사실들이 군사력 확장에 나서는 중국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사적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한 역학적 요소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쇄신 비~~非~~기밀 문서를 토대로 한

신뢰할 만한 판단 근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중국을 둘러싼 군사적 역학 관계

중국의 국가 안보 정책과 군사력 수준을 이해하려면 인민해방군, 인민무력경찰, 민병대 등 3대 핵심 축부터 알아야 한다. 미국은 자원, 혁신, 분권적 통치 방식, 비호전적인 주변국, 대양 접근성, 주권 분쟁 부재 등 타국의 부러움을 살 만한 요소들을 모두 갖춘 ‘환상적인’ 국가다. 덕분에 미국은 명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팽창주의적 대외 안보 정책 및 군사 작전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중국 국가 안보의 핵심적 특성은 지정학적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주변국과 연결돼 있으며, 이해당사국들과 경쟁적이고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은 원거리 전투 작전을 수행하는 주력군이며, 민병대 소속의 특수 해상 부대는 주로 해상 영유권 분쟁에 투입된다. 인민무력경찰은 국내 및 국경 안보를 담당한다.

중국은 위계적 국가 안보 이익 구조에 따라 군이 조직되고, 군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정책 또한 이러한 이익 위계에 따라 정해진다. 정치적 안보와 대내 안보 그리고 국경 안보가 통합된 환경에서, 중국공산당은 해상 영유권 분쟁 등에 쏠리는 군사력 낭비를 점차 줄이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렇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근해(황해, 동중국해, 남

이다. 두
해 전장
로써 조
것이다.
이 추구
대전 수
주축군:

중국의
확대 시
미국 정
거친 자
에도 폐
를 바탕
하는 경
하면서
와 분석
보다 신
특한 견
기타 공
세히 알
들여다볼

중국해)가 가장 시끄럽다.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해상 영유권 분쟁도 전부 이곳에서 발발했으며, 중국 정부도 이 지역에서 자국이 주장하는 주권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지역 우방국 그리고 안보 파트너의 군사적 협약점을 겨냥해 군대를 조직·육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중국의 영유권 분쟁에 선불리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린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지상 기지를 기반으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적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전략은 일반적 방어 전술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들고 작전을 구사하기도 쉽다. 이는 ‘육지를 이용해 해상을 통제한다’는 인민해방군의 전통적 전술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국 정부의 목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자국의 ‘핵심’ 안보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것도 아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중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중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치명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이상적) 외국 군대의 개입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이다. 미국과 그 우방국에 중국의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처럼 강한 군대를 상대하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는 점을 내비침으로써 분쟁에 개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

이다. 두 번째는 다소 저급한 방식이다. 중국 해경과 민병대를 이용해 전쟁과 평화의 중간 상태인 ‘회색 지대’에서의 대결을 조장함으로써 전쟁의 문턱 바로 밑에서 야금야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한 시진핑은 중국이 추구하는 목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민해방군이 현대전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애심 찬 개편을 실시했으며 나머지 두 주축군의 전력도 보강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 시나리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문서나 보고서는 정밀 조사와 심층 분석을 거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외부인은 해당 자료가 발표되고 난 후에도 꽤 오랫동안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처럼 포괄적 정밀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 작업 결과가 이후 확인된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분석 결과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면서 미국의 능력이 입증된 측면이 있다. 미 정부 산하 싱크 탱크와 분석가 집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아무래도 정부 기관의 보고서 보다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관점과 독특한 견해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데 장점이 있다. 한편, 중국 정부와 기타 공개된 출처에서 나온 자료로는 순평가와 관련한 부분을 상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공개 자료라도 비판적 시각으로 들여다볼 경우, 세부적인 부분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전후 맥락 같

결국
이 크
효율
라는
연
중국
타이완
타이완
라, 토
중요한
으로
해상
상당한
상의
이다.
을 때
상당한
취약한
않을 것
의 심기
제공하;
것이다.

은 전반적 흐름이나 분위기는 포착할 수 있다.

이상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최근 중국 정부가 근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각종 이권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인민해방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증강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유형의 군사력 증강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 중국 정부가 우선으로 삼은 과제와 중국의 군사력 수준을 고려할 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남사군도를 둘러싸고 타이완을 비롯한 이해당사국들과 벌인 충돌은 미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일반적인 평가로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앞으로 15년 이상은 장기전의 경우 미군의 우세가 유지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해상전과 공중전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인민해방군이 미군에게 우위를 점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데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중국의 ‘타이완 시나리오’는 여전히 인민해방군의 최상위 계획 요인 planning factor (계획된 군사 작전에 투입될 노력의 양과 형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요소—옮긴이)이다. 이는 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연안의 섬을 점령하거나 타이완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개시하는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타이완 시나리오 자체가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낼 것이 거의 확실하다. 미국이 이 같은 중국의 행동을 마뜩찮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미군이 개입할 것이고 그 결과는 중국의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인민해방군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천혜의 자연 방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타이완의 능력을 감안한다면 타이완 침공이라는 야심 찬 비전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연근해 쪽에 비하면 남중국해는 군사 작전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군에게 훨씬 수월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타이완이 아니라 남중국해 섬이 더 중요할 수 있다. 2,350만 명의 타이완인(중국 정부가 자국 동포라고 주장하는)이 거주하는 섬이 아니라, 토착민도 별로 없고 떡엄떡엄 떨어져 존재하는 고립된 섬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상대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에 한참 밀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의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가 주축이 돼 다양한 ‘회색 지대’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군의 개입이 없다면, 주요 전투 작전 상의 역량을 고려할 때 인민해방군이 상대국 군대보다 우세할 것이다. 미국의 우방인 필리핀이 중국과 충돌하거나 충돌 위기에 있을 때 미군이 필리핀을 지원하고자 개입한다면 양측 모두 작전상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일단 인민해방군은 적의 공격에 취약한 난사군도에 적정 병력을 배치하거나 이를 증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난판을 뚫고 병력 배치에 성공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양국 모두에게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하게 될 뿐이다. 이 또한 중국에게 결코 득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
으
있
이
되
기
기
께
착
불
잡
안
수
이
문
의

는
것
소
정
쳐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해외를 향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때 실질적 효과는 있으되 한곳에 지나친 역량을 집중시키지는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리비아와 예멘에서 자국 국민을 무사히 탈출시킨다든가 아덴만에서 해적의 공격에 대비해 자국 선박을 호위하는 행동을 포함해, 해외에서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별적 습격을 가능케 한다.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적 소탕과 관련한 군사 작전 행위는 국제 안보 차원에서 환영받을 만한 조치다. 중국의 군사적 역량 확대는 항공모함을 활용한 작전 수행과 해상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포함해 더 강력한 해상 전력 투사 power projection (상대의 인적·물적 자산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저지·제압하는 능력—옮긴이)를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지부터 해군 기지를 필두로 더 많은 해군 기지 건설을 전제로 한 상황 전개다. 어쨌거나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만큼의 최첨단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언급한 역학 관계는 미래 중국의 군사적 역량 강화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리적 부분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 안보 역량을 가늠할 때는 ‘거리’ 차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국은 위력적인 군사력을 토대로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국내 제반 사정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경우 중국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주변 경쟁국들과 벌이는 영유권 주장 싸움에서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전반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하더라도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국가 체제를 기반으로 군 조직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경제 지수의 하락과 함께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고, 이 때문에 국내적으로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 결과 1989년에 발생했던 절체절명의 국내 정세 불안 사태는 제외하더라도, 1970년대 말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대외적 차원의 국가 안보와 대내적 차원의 정책 선택이 상호 충돌하는 장면에 직면할 수 있다. 정책적 우선순위로 인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국가적 담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안보 논쟁과 정책 조정의 문제가 장기적인 전력 투사와 연계된 고차적 전투 역량 증진 계획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중국이 기초 안보 역량을 넘어 다른 국가와의 경쟁 능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를 것이다. 선진국 군대가 이미 겪었던 것처럼 중국 또한 비용 증가와 소득 감소라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국가적 우선 과제를 채택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물리쳐야 하는 대내외적 압박 속에서 상대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

및 체
할 것
작용
전자
이 는
는 것
중
근해
있다
수적
결
는 ◊
를 ◊

군분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육해공군 전부가 인적 지원과 관련한 비용 상승에 직면할 것이다. 구조적, 조직적 개혁에는 필수 요소에 대한 투자비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서구 선진국 군대와 마찬가지로 유능한 전문 인력의 유치, 교육, 훈련 및 유지를 위한 임금 인상과 각종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복지 혜택의 증가, 특히 이미 재정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전역 군인들의 증가로 인해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 최정예 군 조직인 인민해방군은 기술적인 요소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군 전력의 첨단화가 이루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는 향후 더 발전되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진보하기는커녕 외국군과의 경쟁 상황에서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진다. 최첨단 기술 혁신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므로 목표 달성 자체도 쉽지 않다. 이는 미국이 이미 겪었던 현실이기도 하다. 당연 한 말이겠지만 첨단 무기 체계 및 이와 관련된 인프라는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이전의 단순한 체계보다 구축과 운용,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군사 장비와 무기 체계가 노동 집약적 차원에서 기술 집약적 차원으로 진화함에 따라 그동안 중국군이 누렸던 비용 우위 효과도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인민해방군이 점점 정밀하고 기술 집약적인 체계로 나아갈수록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을 현지화하는 데서 비롯되는 상대적 이점이 줄어들고, 첨단 기술

및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부분에서의 비용 우위도 점차 감소 할 것이다. 게다가 최첨단 장비 및 무기를 운용하려면 정확한 상호 작용 시스템이 필요한데 중국은 이를 구축하는 데 따른 정밀 장비, 전자 장치, 기타 복잡한 기술 체계에서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중국이 국내 기술과 외국 기술을 단편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취약성을 키우는 데 한몫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만큼 정교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근해에서의 팽창주의 야심을 달성하는 데는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만큼의 첨단성과 정교성은 원거리 전투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지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군사 안보 측면에서 중국의 발전은 원거리 교전에 수반되는 여러 문제, 미국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 등 다양한 암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